제7회

# 수산미래포럼

## 융·복합을 통한 제주 어촌의 미래화

■ 일 시 : 2014. 9. 30(화) 10:30~16:00

■ 장 소 : 제주그랜드호텔 2층 크리스탈 연회장

■ 주 최 :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JDI 제주발전연구원 Jeju Development Institute

■ 후 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국농어촌사랑방송예술인공동체

# 일 정 표

| 시 간 | 진 행 순 서 |
|---|---|
| 10:00~10:30 | ■ **접수등록** |
| 10:30~11:00 | ■ **국민의례**<br>- 개회사 : 이종구 회 장(수협중앙회)<br>- 축 사 : 이주영 장 관(해양수산부)<br>- 축 사 : 원희룡 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br>- 축 사 : 김우남 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11:00~11:15 | ■ **공로패 전달** : 고인오 할머니 |
| 11:15~11:20 | ■ **희망메세지 전달**<br>임병기 이사장(한국 농어촌사랑 방송 예술인 공동체) |
| 11:20~11:50 | ■ **기조강연**<br>○ 주제 : **제주해녀의 역사와 역할**<br>- 고유봉 제주대 명예교수 |
| 12:00~13:00 | ■ **오 찬** |
| 13:30~14:30 | ■ **주제발표** (사회자 : 강승진 제주발전연구원 부장)<br>○ 제 1주제(13:30~13:50)<br>**어민의 터전, 어촌과 마을어업의 현재**<br>- 김창선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과장<br>○ 제 2주제(13:50~14:10)<br>**제주 어촌의 핵심, 해녀산업의 효과**<br>- 강석규 제주대학교 교수<br>○ 제 3주제(14:10~14:30)<br>**제주 어촌의 미래, 어촌자원의 융복합화**<br>- 고봉현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 14:30~14:40 | **휴 식** |
| 14:40~16:00 | ■ **종합토론 및 질의 응답**<br>○ 좌 장 : 김정봉 수산경제연구원장<br>○ 토론자<br>- 서장우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br>- 박태희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br>- 좌혜경 제주발전연구원 박사<br>- 김시준 한림수협 조합장<br>- 이선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포럼 대표<br>- 김호연 경기남부수협 백미리어촌계장<br>- 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
| 16:00 | **폐 회** |

# 개 회 사

존경하는 제주 어업인 여러분!

수협과 제주발전연구원이 함께 '융복합을 통한 제주 어촌의 미래화'를 주제로 제7회 수산미래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님,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님 등 커다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내외 귀빈과 포럼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조건과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수산업의 거점으로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제주의 어업인들은 특유의 결속력과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어촌계를 구성해 수산 발전과 지역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해녀로 상징되는 제주 어업인들의 강인한 정신과 생명력은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정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어업인들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제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산업의 중심지이자 역사적, 문화적으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지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어촌이 안고 있는 고민과 같이, 자원이 고갈되고 종사인구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으며 어업인 간 소득 양극화 등 수산 발전을 저해하는 위협 요인들이 상주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위기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 어촌이 더욱 탄탄한 성장의 기반을 발판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시대를 맞아, 제주만이 갖고 있는 수산, 관광, 문화 자원을 결합해 어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주의 해녀는 세계적으로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 받고 있으며 이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컨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 생산에 머무는 1차 산업의 범주를 넘어 문화와 관광 요소까지 아우르는 어촌발전의 새로운 모델 제시가 이곳 제주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파급효과가 전국의 어촌으로 널리 퍼져 나간다면 안팎의 어려움에 직면한 대한민국 수산이 다시금 일어서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곳 제주는 어촌 및 수산자원과 관광을 연계한 발전 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날로 늘어가는 중국 관광객을 기반으로 국제적 해양수산문화 관광 중심지로 발돋움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의 청정한 바다에서 생산된 신선한 수산물은 국민은 물론 세계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고급 식재료로서 가치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은 제주 어촌의 미래에 청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긍정적인 요인들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주 어촌과 그 속에서 생활하는 어업인들이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포럼에서 진행될 고유봉 제주대학교 명예교수님의 기조연설과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해, 제주 지역은 물론 전국 어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제가 발굴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이주영 장관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과 포럼 참석자 여러분, 그리고 수산미래포럼을 준비를 위해 적극 노력해주신 제주발전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4. 9. 30

수협중앙회장 이 종 구

# 축 사

오늘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와 제주발전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융·복합을 통한 제주 어촌의 미래화' 수산미래포럼이 아름다운 제주에서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포럼에 의미있는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를 준비해주신 제주대학교 고유봉 명예교수님, 제주특별자치도 김창선 과장, 제주대학교 강석규 교수님, 제주발전연구원 고봉현 책임연구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을 준비한 수협중앙회 이종구 회장님과 제주발전연구원 박원배 원장 직무대행, 그리고 관계 임직원에게도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냅니다.

제주는 지역 내 총생산 대비 수산물생산 기여도와 지역 내 인구 대비 어가인구 비율이 전국 최대를 자랑하는 그야말로 한국 수산의 요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의 비중이 큰 만큼 오늘날 수산이 직면해 있는 문제, 즉 수산자원의 감소, 어촌의 고령화 및 인력 부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불안 등으로 인한 고민이 더욱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주 어촌의 미래가치를 증진하고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제주 수산인의 사기를 더욱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융·복합을 통한 가치창출이 대세인 오늘날, 제주 만의 독특한 '해녀' 문화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미래산업의 가치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기조 강연과 발표, 그리고 토론을 해주실 참여자 여러분 !

여러분께서 발표하시고 토의하시는 귀중한 말씀들은 제주 어촌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촌과 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포럼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이 자신의 지식을 아낌없이 공유해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제주와 우리나라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이 공동 개최하는 '융·복합을 통한 제주 어촌의 미래화' 수산미래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참가하신 분 모두가 수산업 발전을 기원하는 한마음임을 간직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 9. 30

해양수산부 장관 이 주 영

# 축 사

제7회 수산미래포럼을 제주에서 개최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광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정봉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장님, 평소 제주 해녀 분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종구 수협중앙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제주의 어머니이신 해녀여러분, 어촌계장님과 지구별 수협장님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수산업에 있어 제주도의 가치는 특별합니다.

4면이 바다인 제주도는 풍부한 수산자원의 보고요, 해녀의 본향입니다. 제주 해녀의 문화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높이기 위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녀문화의 보전은 그리 녹록치가 않습니다.

1970년대 1만 4,000명에 달하던 제주 해녀는 현재 4,000 여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중 절반은 70세 이상 어르신에 이를 정도로 고령화되었습니다.

우리가 해녀를 지켜야 합니다.

저는 해녀 분들의 복지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수진료비 지원과 작업 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해녀 분들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겠습니다.

어촌의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풍부한 자원의 조성을 위한 관리방도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자랑하는 해녀문화와 풍부한 수산자원의 조화로운 성장을 추구한다면 제주 어촌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제주 바다는 제주도의, 나아가 대한민국 수산업의 미래가치입니다.

뜨거운 오늘의 논의가 제주어촌의 미래가치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 물질도 마다하고 귀한 시간 내주신 해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9. 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 축 사

안녕하십니까

제주 출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우남 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님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수산업의 미래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자리를 함께 하신 제주 해녀분들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오늘 행사를 세계자연문화유산인 제주도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한 이종구 수협중앙회장님과 제주발전연구원 박원배 원장대행님께 아낌없는 격려를 보냅니다.

또한 제주의 어촌과 마을어업의 역사·문화·산업적 가치의 재조명을 위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전문가분들과 행사 준비를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으로 역사 이래 생활, 경제, 산업, 문화 등의 모든 삶이 바다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제주도는 바다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해녀문화를 포함한 제주 마을어업은 제주의 살아 있는 대표적 문화유산이자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화가 경제적 논리와 산업화로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융·복합을 통한 제주 어촌의 미래화에 대한 포럼이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서의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세계와 교류하고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세계 해녀(海女)의 본향(本鄕)인 해녀문화를 비롯한 제주 마을어업의 역사가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금번 포럼을 통해 논의되는 제주 어촌과 마을어업, 제주 해녀의 의미와 가치, 제주 어촌의 미래에 대한 논의는 제주 수산업의 가치를 정립하고 나아가야할 방향을 정립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제주도의 비전인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 발표한 내용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실행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본 의원 역시 국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협중앙회와 제주발전연구원의 수산미래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지금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사가 제주 수산의 미래가치를 재조명하고 창조적 수산업을 준비하는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우리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9. 30

국회의원(제주시乙),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 우 남

# 희망메세지 전달

한국 농어촌사랑 방송예술인 공동체

# 제주 해녀문화의 융성을 위한 방송예술인 희망 메시지

우리 한국농어촌사랑방송예술인공동체는 금번 수산미래포럼을 통해 세계 해녀(海女)의 본향(本鄕)인 '제주해녀'의 산업적 역할과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적 가치가 재조명되어 우리의 고유한 세계유산으로 지속 계승하고, 나아가 세계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 하나, 제주 해녀문화의 유지·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합니다.

✓ 하나, 제주 해녀의 전통 계승과 지속적 어업활동을 위해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계속되기 바랍니다.

✓ 하나, 제주 해녀문화의 고유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조속히 등재되기를 희망합니다.

✓ 하나, 반만년 제주의 바다와 어업과 함께 숨쉬어 온 해녀의 숭고한 정신이 제주의 미래발전에 기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4. 9.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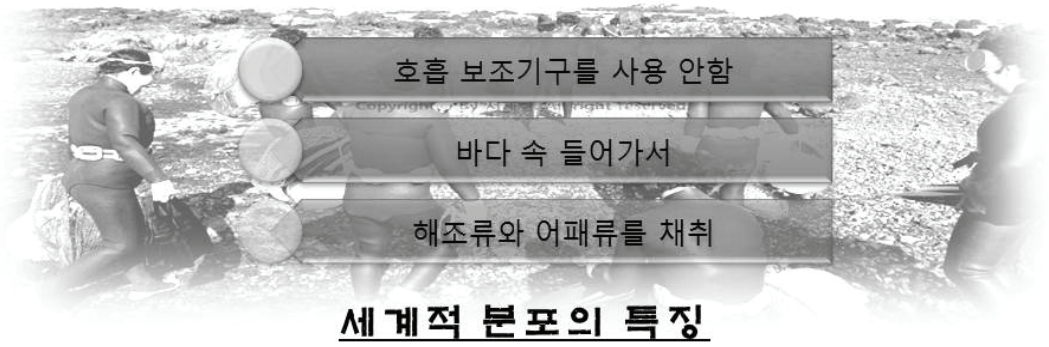
한국농어촌사랑방송예술인공동체 일동

기조강연

# 제주해녀의 역사와 역할

– 고유봉 제주대 명예교수

## 해녀의 정의




### 세계적 분포의 특징

| 지 역 | 성 별 |
|---|---|
| 폴리네시아 | 남 성 |
| 일 본 | 남성, 여성 |
| 우리나라 | 여 성 |

# 해녀의 기원

**정착**

동북아시아 까지 확대 되어 우리나라 동해와 제주도, 일본 등에 정착

**확대**

북상하여 중국 남안으로 까지 확대

**시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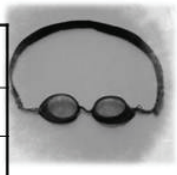
(아)열대 및 온대 해역

# 해녀의 발달과정

## ㅇ해녀의 도구 변천

**과거 : 박으로 만든 태왁** **현 재 : 스티로폼 태왁(1970~)**

| | 과 거 | 현 재 |
|---|---|---|
| 어 망 | 식물성재료 망시리 | 나일론 어망 |
| 안 경 | 미착용 | 소형쌍안경(1800년 말)→대형 단안경(1960~) |
| 잠수시간 | 1시간(물옷잠수)전후 | 장시간 |



# 해녀의 발달과정

## 잠수복의 변천

| 년 도 별 | 종 류 |
|---|---|
| | 맨몸잠수어업(나잠어업) |
| 1910년 경 | 물옷잠수어업 |
| 1935년 이후 | 물적삼이 해녀복으로 등장 |
| 1970년대 초부터 | 고무옷 잠수어업 |

# 한국에서의 제주해녀 관련표기

| 년 도 | 관 련 표 기 |
|---|---|
| 1483년(성종 14년, 조선왕조실록) | 제주의 포작인(鮑作人)들 전라도와 경상도에 흩어져 살며 도적질 하나 증빙 없다. |
| 1485년(성종 16년, 조선왕조실록) | 포작인(鮑作人)을 전복따는 사람으로 해석 |
| 1522년 5월 28일<br>(중종 17년, 조선왕조실록) | 제주의 포작인들 전라도 덕흥 지방으로 옮겨 살고, 추자도 주변 도시에서 해절질 한다 |
| 1522년 6월 26일<br>(중종 17년, 조선왕조실록) | 제주의 포작간(鮑作干)들 남도 연변에 와서살다.(여기에서 간(干)은 해산물로 생활하나 함부로 옮겨 다니면서 법을 어겼기 때문에 간범(干犯)의 뜻으로 쓰인 듯 함) |
| 1538년 (중종 33년, 조선왕조실록) | 포작한(鮑作漢)들 없으면 병선운용이 어렵다. |
| 1578년(임제의 남명소승) | 어수(漁手)가 지나가며 낚싯줄 던져 옥도미 잡다. |
| 1601년(김상헌의 남사록) | 포작배(浦作輩)들 홀아비로 살다 죽는 이 많다. 포작배(浦作輩)의 아내 되길 원하지 않는다. |
| 1628~1635년(이건의 제주풍토기) | 해산물 어획 중 천한 것은 미역 캐는 여자를 잠녀(潛女)라 한다. 탐관오리 만나면 소위 잠녀배(潛女輩)는 거지 되어 얻어먹으러 돌아다닌다. 탐라 개국시 땅속에서 나온 3인이 어렵(漁獵)하러 바다로 오다. |
| 1929년(이건 목사) | 남녀가 어울려 바다에서 조업 못한다고 명령 내림 |
| 1651~1653(이원진의 탐라지) | 포작(포작) 잠수업은 남자는 적고 여가가 많다. 지방풍속이 여자에게 잠수시키며 첩하기를 능사로 안다. |
| 1702년 (숙종 28년, 조선왕조실록) | 어호(漁戶, 고기잡이하는 사람)의 집은 배를 부리는 군사(軍士)의 역할 겸하고 있고 처(妻)는 잠녀(潛女)이다.<br>남자는 전복을 따지 않고 오직 잠녀(潛女)에게 떠맡긴다.<br>지아비는 포작(鮑作, 절인 어물 만드는 사람) 겸 사공으로 배일을 하고 , 처는 잠녀(潛女)로서 미역과 전복 공납준비한다. 육지(한반도)의 포작배(鮑作輩)들은 제주에서 전복 채취한다.<br>포작자(鮑作者)는 1년에 말 20필 이상, 잠녀(潛女)도 7~8필 공납한다. |
| 1704년 (이형상의 남환박물) | 요리사 중 포작한(鮑作漢)이 있었다.<br>잠녀안(潛女案)에게 진상용 전복과 미역을 책임 지운다. |
| 1776년(정조 즉위년, 정조왕록실록) | 전복(全鰒) 따는 잠녀(潛女)들이 공물을 바치다 |

# 한국에서의 제주해녀 관련표기

| 년 도 | 관 련 표 기 |
|---|---|
| 1863년<br>(이건필의 제주목안행작계 등록) | 저는 포작인(鮑作人)으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삼습니다. |
| 1884년 (고종 21년, 조선왕조실록) | 본섬의 수십만 백성들 전적으로 어업에 의존, 미역과 전복(全鰒) 따기는 모두 여자들의 일이다. |
| 1885년 (나가사키 현청 왕복문서) | 1860년경부터 일본의 잠수기(잠수기)어선 제주도 출현 |
| 1920년 4월 | 제주도해녀(濟州島海女)어업조합 설립 |
| 1924년 (여자고등조선어독부, 3권) | 「제주도의 해녀」라는 글을 실음 |
| 1947년(석주명) | 잠녀(潛女)는 제주말(언어)이고 그에 해당되는 표준어는 해녀(海女)이다 |
| 1954년 (담수계, 증보탐라지) | 해녀(海女) 즉 잠부(潛婦)는 본도의 독특한 존재이다 |
| 1970년 (강대원의 해녀연구) | 책 제목은 해녀, 내용서술에는 잠수(潛嫂)로 일관함 |
| 1996년 (김영돈의 제주해녀) |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여인들을 해녀(海女), 잠녀(潛女), 잠수(潛嫂)라 부르고 해녀(海女) 사용 주장 |
| 2001년<br>(강대원의 제주잠수권익투쟁사) | 잠수(潛嫂)와 해녀(海女) 용어 혼용 |
| 2002년<br>(고찬화, 김천형의 제주의 근세사) | 잠녀(潛女) 일본어 해녀(海女)로 쓰는 것에 대해 강한 반발.<br>본도에서는 오래전부터 잠녀(潛女) 또는 잠수(潛嫂)라고 써왔음.<br>굳이 구분하자면 잠녀(潛女)는 40대 젊은 층, 잠수(潛嫂)는 40대 나이 많은 층을 칭하거나 모든 잠녀를 칭함.<br>포작인(鮑作人)은 와음현상으로 인해 '보재기'라고 부르며, 지금은 어부(漁夫)만을 일컬음 |

# 섬 밖으로 돈벌이 나섬

## 출가(出稼)의 역사

▶ 갑오경장(1894년) 이후 해조류의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제주해녀의 관심도 증가와 출가 발생

▶ 1900년대 초 제주해녀의 우수성 도외 발휘

▶ 한일합방 이후(1910년) 출가인이 2,500명으로 증가 (1923년 제주 ↔ 오사카 항로 개설)

## 제주해녀 (일본해녀) 대비 비교 · 특징

▶ 저렴한 임금

▶ 저수온에서 강인함

▶ 나잠시 열 발까지 무(無)도구 잠수

▶ 배 없이 물질 가능

1935년부터 해방 직전까지 제주-시모노세키-오사카 항로에 취항했던 제2군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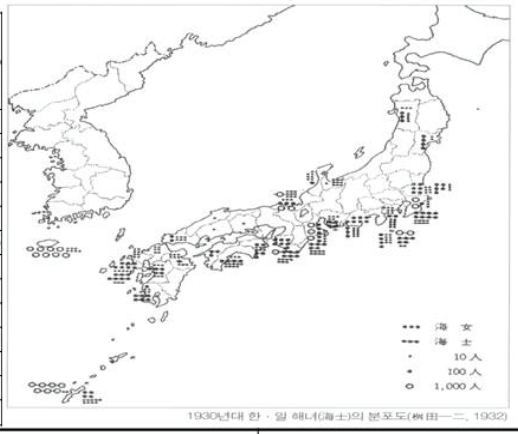
## 제주경제의 원동력(1925년 ~ 1933년)

▶ (일본)출가 해녀의 총년수입 50만원~100만원
(당시 밭 하나 가격 = 100만원 / 제주거주 해녀의 4배 수입)

# 출가 해녀의 역사

## 연도별 현황

| 연 도 | 도 내 | 출 가 해 녀 | | | 합 계 |
|---|---|---|---|---|---|
| | | 소 계 | 국 내 | 일 본 | |
| 1,895 | | | 첫출가 (경상남도) | | |
| 1,903 | | | | 첫출가 | |
| 1,910 | | 2,500 | | | |
| 1,915 | | 2,500 | | | |
| 1,920 | 8,200 | | | | |
| 1,921 | | | 4,000 | | |
| 1,929 | 7,300 | 3,500 | | | 10,800 |
| 1,930 | | | 4,000 | | |
| 1,930 | | | 3,860 | | |
| 1,931 | | | 3,950 | | |
| 1,932 | 3,784 | 5,078 | 3,478 | 1,600 | 8,862 |
| 1,934 | | 4,402 | 2,810 | 1,592 | |
| 1,937 | | 4,402 | 2,801 | 1,601 | |
| 1,938 | | 4,132 | 2,584 | 11,548 | |



1930년대 한 · 일 해녀(海士)의 분포도(桝田一二, 1932)

### 일본으로출가 해녀의 증가

▶ 직항로 개설('23. 12) : 제주 ~ 오사카

| 연도 | 국내 | |
|---|---|---|
| **1895** | 부산의 영도 | |
| **1915** | 경상남도 1,700, 다도해 300, 기타 500 | |
| **1921** | 울산, 장승포 등지 출가 4천여 명 | |
| **1937** | 경상남도 1,650, 경상북도 473,<br>잔라남도 408, 충청남도 110,<br>강원도 54, 황해도 32,<br>전라북도 19, 함경북도 5 | 대마도 750, 시즈오카 265,<br>도쿄 215, 고치 130,<br>나가사키 65, 가고시마 55,<br>치바 51, 도쿠시마 50,<br>에히메 10, 시마네 10 |

# 제주도 '해녀어업조합' 설립과 투쟁

제주도해녀어업조합(1926년)

## 설 립 배 경

일제 강점기 이후 해조류 가격 상승으로 객주들의 해녀에 대한 유인 증가로 공동의 이름으로 해조류 판매 목적과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합 설립

## 최초 설립 동의(제주도해녀어업조합)

1919년 10월 김태호 등 뜻을 같이하는 인사중심으로 제주도 해녀어업조합 설립 동의

## 창 립

1920년 4월 16일 정식으로 제주도해녀어업조합 창립

# 제주도 '해녀어업조합' 설립과 투쟁

## 연도별 주요 사건

| 연 도 | 주요 사건 | 사건 전말 |
|---|---|---|
| 1919 | 최초 설립(제주도해녀어업조합) 동의 | |
| 1920.4.26 | 제주도해녀어업조합 창립 | 공동판매, 중계 및 조직적인 자금 융통(조합원 8,200명) |
| 1923.4 | 입어 거부 | 제주해녀의 국내 출가 증가로 인한 경남지방에서의 입어 거부 |
| 1925.2 | '해녀입어에 대한 협정' 체결 | 제주 해녀의 경상도 입어 허가(1,727명) |
| 1927.5 | 부정규탄 | 추자어업조합의 해녀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한 추자어민의 규탄으로 경찰이 강제 군중 해산(21명 검거, 7명 옥고) |
| 1932.5 | 일본인의 유자망 어업행위 | 추자주민이 어업고갈 항의 (재판 회부로 13명 유죄선고) |
| 1932.1 | 동부해녀의 시위 | 신임 제주도사 다구치 의 초도 순시에 따른 동부해녀 1천여명의 항의 시위(20명 체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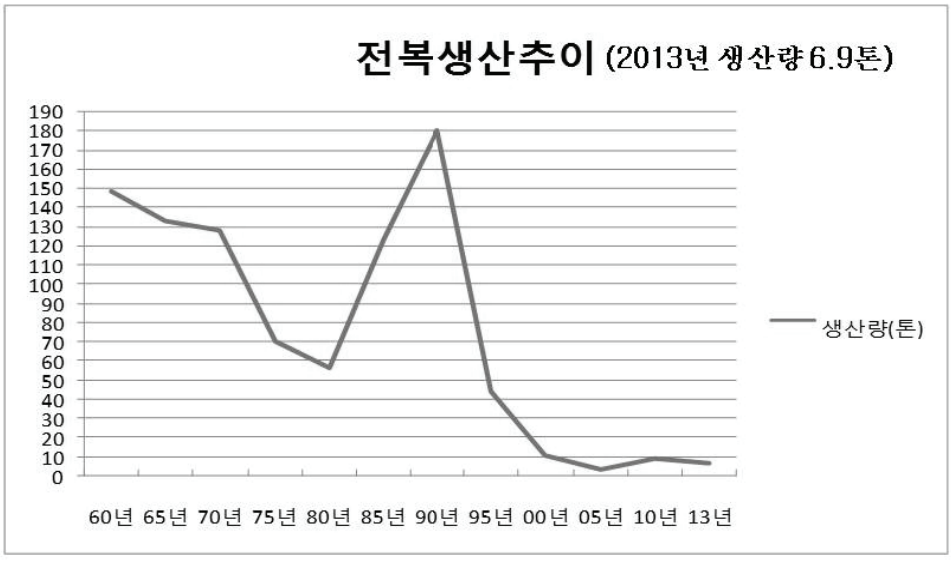
# 위기의 제주해녀 어업

## 1. 제주해녀의 감소

| 구분 \ 연도별 | | '70 | '80 | '90 | '00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
| 잠수수(명) | | 14,143 | 7,804 | 6,827 | 5,789 | 5,545 | 5,406 | 5,279 | 5,244 | 5,095 | 4,995 | 4,881 | 4,574 | 4,507 |
| 연령 구성 비율 (%) | 30세 미만 | 31.3 | 9.8 | 4.3 | 0.1 ( 3) | - | - | - | - | - | - | - | - | - |
| | 30 - 49세 | 54.9 | 60.7 | 44.2 | 22.1 (1,282) | 12.9 ( 718) | 9.3 ( 518) | 6.7 (356) | 4.9 (263) | 4.2 (213) | 2.5 (125) | 2.7 (132) | 1.9 (87) | 1.5 (66) |
| | 50세 이상 | 13.8 | 29.5 | 51.5 | 77.8 (4,504) | 87.1 (4,827) | 90.4 (4,888) | 93.3 (4,923) | 95.1 (4,981) | 95.8 (4,882) | 97.5 (4,870) | 97.3 (4,749) | 98.1 (4,487) | 98.5 (4,44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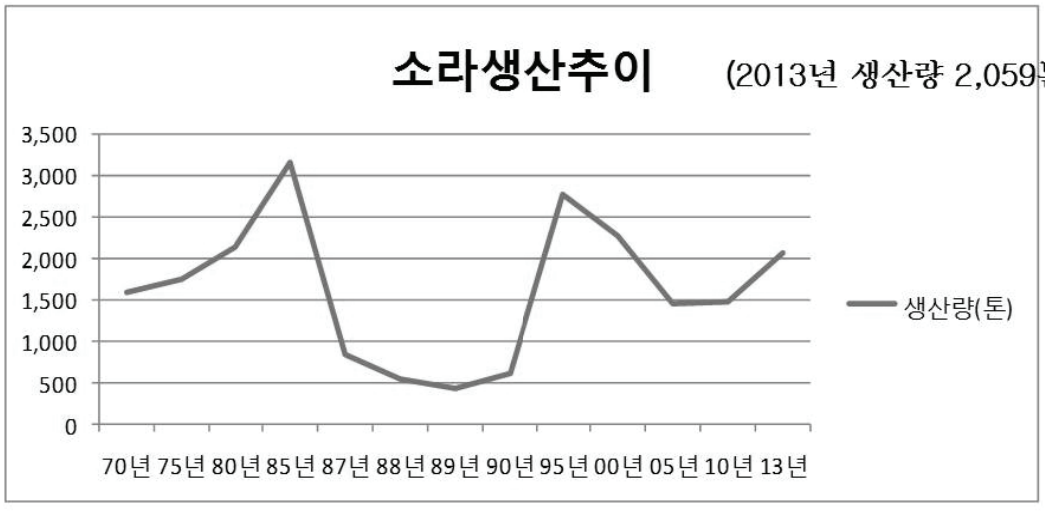
## 위기의 제주해녀 어업

2. 생산량 감소(전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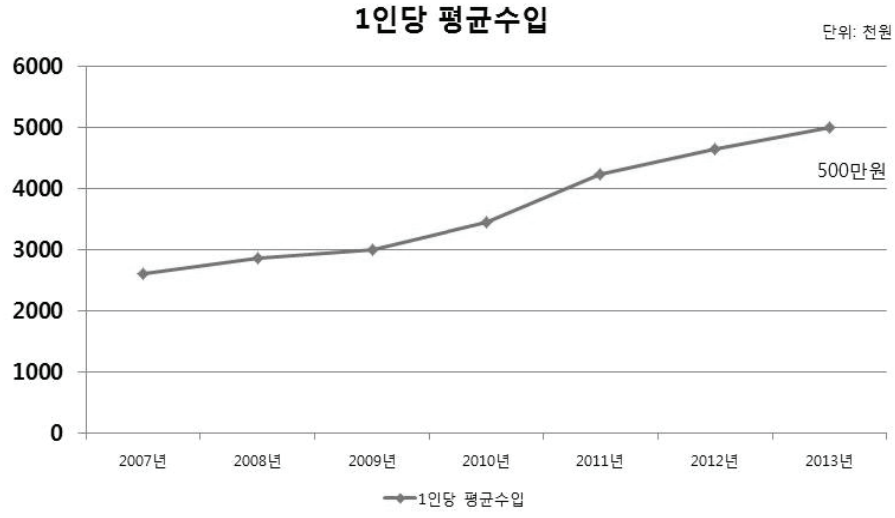

## 위기의 제주해녀 어업

2. 생산량 감소(소라)



## 위기의 제주해녀 어업

3. 소득부진




※ 연간 1인당 최고소득 : 약 2,000만원, 최저소득 약 200만원

출처 : 제주발전연구원

## 위기의 제주해녀 어업

4. 환경오염과 파괴

5. 중장기전략 부재

6. 자존감 상실

0

## 참고 문헌

제1 주제발표

# 어민의 터전, 어촌과 마을어업의 현재

– 김창선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과장

# 어업의 터전『어촌과 마을어업』의 현재와 미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장

## 목 차

Ⅰ. 어촌의 현실

Ⅱ. 어촌계의 기능과 발전방안

Ⅲ. 마을어장의 이용과 효율적 관리방안

Ⅳ. 마을어장 자원관리 방안

Ⅴ. 마을어업과 연계한 소득화 전략

## Ⅰ. 어촌의 현실

● 어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69.3% 수준('12년/전국)

- 전국 도시근로자 소득('12년) : 53,940천원, - 어가소득 : 37,381천원

● 어업인구 감소, 고령화, 인력난 - 어촌공동체 유지의 불안

- 어업경영인(종사자) 60세이상 50%상회, 인력난 가중

(외국인 어업종사자 증가 추세)

- 잠수(해녀) 어업인 고령화 가속화(70세이상 51% 차지)

● 바다환경 악화(기후변화) → 소득감소 → 탈 어촌현상 지속

- 마을어업 소득 : (95년) 376억원 → (13년) 225억원(△ 40%)

● 귀농(歸農)은 증가 추세이나, 귀어(歸漁)는 정체 또는 기피

## Ⅱ. 어촌계의 기능과 발전방안

〈어촌계의 기능〉

❑ 어촌계 수 : 100개(제주시 56, 서귀포시 44)

❑ 어촌계의 기능

- 돈을 버는 경제적 기능

. 수산물 공동 채취, 공동분배 ⟶ 어촌의 경제적 구심체

- 해녀 문화 등 사회 문화적 기능

. 계원간 상부상조, 친목도모, 제사공동체(풍어제)

- 민주주의 학습장 : 의사결정과정 참여

❑ 어촌계 인가 :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 지도감독 : 지구별수협

## Ⅱ. 어촌계의 기능과 발전방안

〈어촌계 운영상 문제점〉

❑ 신규 어촌계원 가입 장벽 높음(계원 자격, 어촌계 가입비 문제 등)

❑ 어촌계장 경선에 따른 어촌사회 분열 조장

❑ 지구별 수협의 어촌계 운영 지도 감독 소홀

❑ 혁신적인 어촌리더의 빈곤

## Ⅱ. 어촌계의 기능과 발전방안

〈어촌계 조직기능 개선방안〉

❑ 수협 조합원 및 어촌계 가입제도 완화

- 1년중 60일 이상 어업 경영자에 한해서 어촌계 가입→
  준 어촌계원으로 가입토록 한후 조합원 가입

❑ 어촌계장 선거제도 개선

- 어촌사회 분열방지, 지구별수협장의 어촌계 효율적지도감독 등

❑ 어촌계 지도 감독 기능 강화

- 마을어장 운영관리, 지도사업, 생산통계작성 등

❑ 어촌계 인가(행정시)와 지도감독(지구별수협장) 일원화 검토 필요

❑ 어촌지도 사업에 대한 수협의 역할 강화

## Ⅱ. 어촌계의 기능과 발전방안

❑ 마을어장 이용

- 정성들여 키워서 수확하는 잠수어업인의 "텃밭"
- 마을어장 면적 : 14,431ha (100개 어촌계)
- 마을어장 이용 관리자(행사자수) : 4,574명
  - 개인별 평균 어장이용 면적 : 3.15ha(약 9,000평)
- 해녀 물질 작업 광경, 전복, 소라, 성게 등 청정 수산물 자체가 제주도의 관광자원

## Ⅲ. 마을어장의 이용과 효율적 관리방안

※마을어업 이용자(해녀) 변동추이(2013. 12. 31현재)

| 구 분 | 계 | 30세 미만 | 40세 미만 | 40~49 | 50~59 | 60~69 | 70세 이상 |
|---|---|---|---|---|---|---|---|
| 계 [비율] | 4,057 (100) | - | 7 (0.2) | 59 (1.3) | 696 (15.4) | 1,448 (32.1) | 2,297 (51) |
| 제 주 시 | 2,582 | - | 5 | 44 | 421 | 800 | 1,312 |
| 서귀포시 | 1,935 | - | 2 | 15 | 275 | 648 | 985 |

## Ⅲ. 마을어장의 이용과 효율적 관리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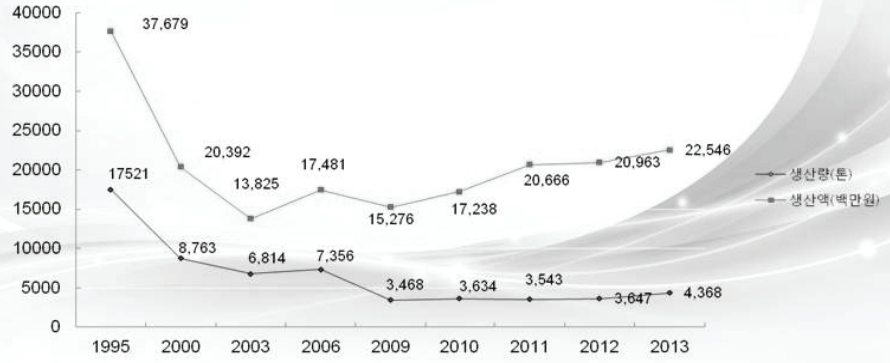
〈 마을어장 관리운영 실태 〉

- 마을어장 = 공동어장 (공유지)
- 1970년도부터 고무옷이 나오면서 남획 (과잉조업) 초래
- 어장 이용에 대한 『 공동체 문화 = 배려문화 』 이미 사라짐
  - 행사자(해녀)간 지나친 경쟁어업 초래
  - 자율관리어업에는 방관적 입장이 우세 〈수범적 자치규약이 없음〉
- 지금 자기세대만 생각
- 제주 : 행사자간 경쟁조업, 타시도 : 행사자 고용조업 (어장 빈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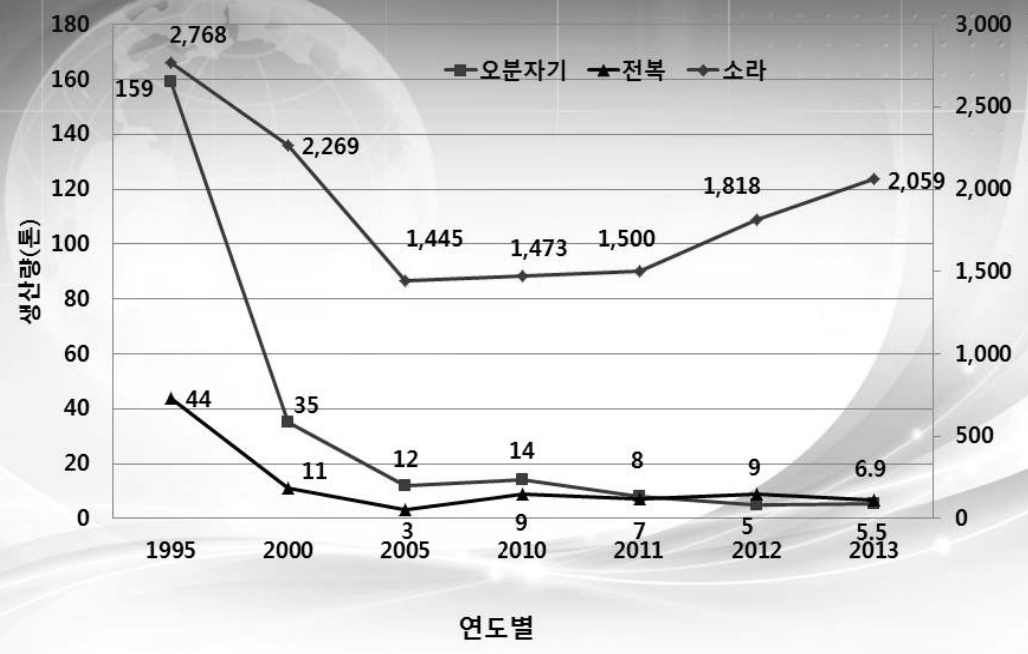
## Ⅲ. 마을어장의 이용과 효율적 관리방안

❑ 마을어업 연도별 생산량 추이

| 구 분 | 1995년 | 2000년 | 2003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생산량 (톤) | 17,521 | 8,763 | 6,814 | 3,468 | 3,634 | 3,543 | 3,647 | 4,368 |
| 생산액 (백만원) | 37,679 | 20,392 | 13,825 | 15,276 | 17,238 | 20,666 | 20,963 | 22,546 |



❑ 주요 품종별 생산추이




## Ⅲ. 마을어장의 이용과 효율적 관리방안

❑ 마을어장 환경변화 가속화

- 외부환경 요인 (기후변화, 육상오염원 등)에 자정능력 상실
  - 수온 1℃ 상승 – 해조류 식생 300km 북상
  - 바다는 육상오염원에 대한 "어머니의 품"이 되어 버림
- 마을어장 자원조성 등 투자에 비하여 소득연계 체감은 미미 (종묘방류, 투석 등)
  - 공급자 (행정)와 수요자 (이용자)의 반성의 필요
- 어장 이용자, 행정 등이 공감하는 정책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고 있음 (인센티브와 패널티 필요)

## Ⅳ. 마을어장 자원관리 방안

❑ 환경변화 및 육상오염원에 대한 대응

-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위기를 기회로)
- 이해당사자 (개인, 기관등)간의 같은 철학 공유 노력
- 고속도로 같은 하천정비 등으로 연안어장 황폐화 심각
- 제주바다의 가치 공유 ➡ 미래가 있는 바다공간 활용 등 다른 차원에서 접근 필요

❑ 자원조성사업에 대한 성과확보에 노력

- 지속가능한 자원유지 위한 인프라 시설
- 마을어장내 자원조성 사업의 성과확보 극대화에 노력

❑ 자율관리어업 정착

○ 현 황

- 참여공동체 : 55개소(마을어업 48, 복합어업 3, 어선어업 4)
- 어촌계별 : 참여 51, 미참여 49

○ 추진방법

- 새로운 공동체 참여 확대 : 미참여 어촌계, 어선주협회 등
- 자원관리 정착 : 마을어업 소라 TAC 정착, 어린고기 재방류 등
- 정부 의존도 축소 및 수범적 자치규약 등 자발적 참여로 자원관리 달성 가능
- 수산분야 전반으로 확대

❖『보조를 받기 위한 수단』에서 탈피

❑ 자원회복 어장휴식년제 시범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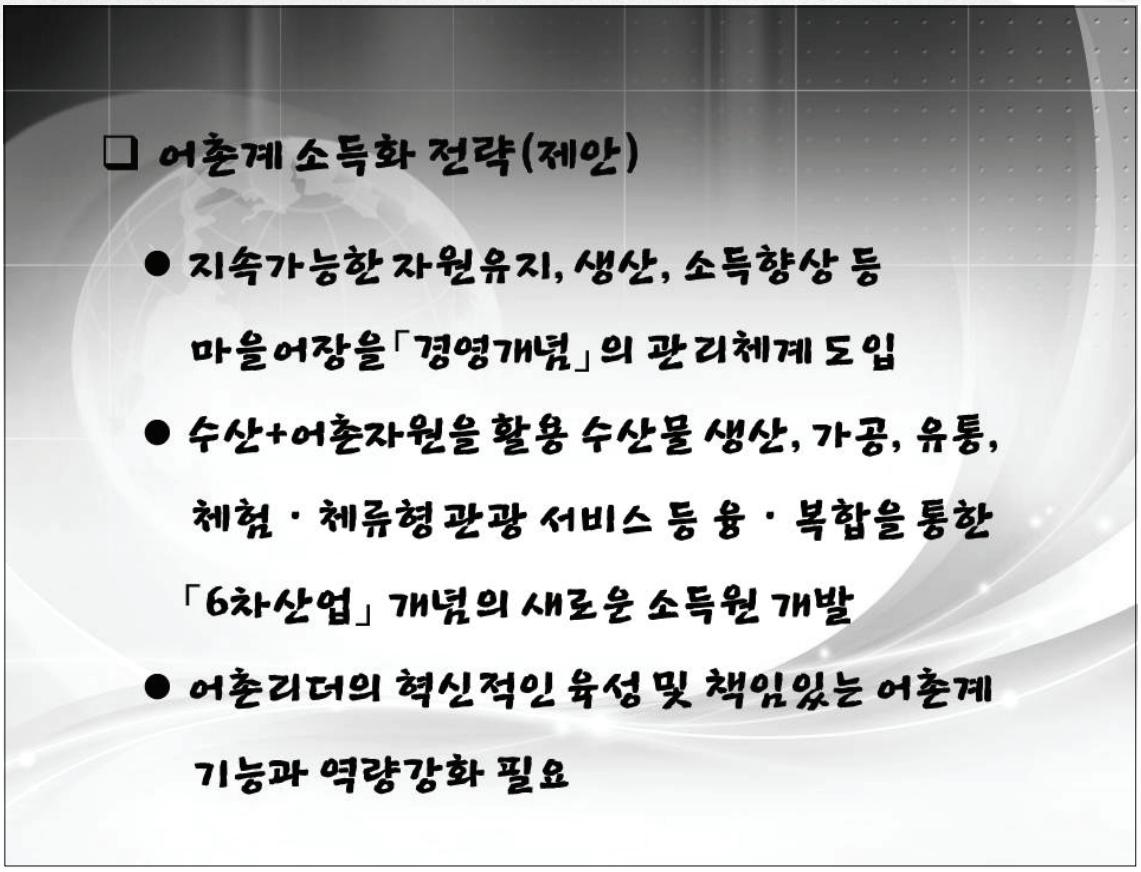
- 공간적 범위
  - ▪ 어장면적은 그대로 있고, 이용자는 감소
  - ▪ 어촌계별 어장면적, 이용자수 고려 어장을 나눔
  - ▪ 어장의 휴식을 통한 재생산 공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줌
- 추진방법
  - ▪ 자율적 신청에 의한 일부어장 휴식년제를 통한 윤채입어 방식
  - ▪ 해당어장에 대하여는 공동생산, 공동분배 유도
  - ▪ 휴식기간 (입어금지) : 최소한 1년
  - ▪ 어장의 행사자 (잠수)가 적은 어촌계부터 시범실시 권유

❖ 소득감소를 이유로『직불제』개념의 소득 보전 방식은 안됨

## Ⅴ. 마을어어업과 연계한 소득화 전략

❑ 문제제기

- 전통어업 소득감소에 대응「어업외 소득창출」에 대한 정책 부재
- 어촌계(주민)의 배타성, 어촌과 바다가 융합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자원을 제한적으로 활용
- 고유, 본래의 전통 수산업의 생산 중심적 사고, 어촌리더의 빈곤
- 어촌에 불특정 다수의 자원(복합적)은 있는데, 이를 묶어서 파는 Package「상품」이 없음


❑ 어촌계 소득화 전략(제안)
● 지속가능한 자원유지, 생산, 소득향상 등
마을어장을「경영개념」의 관리체계 도입
● 수산+어촌자원을 활용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체험 · 체류형 관광 서비스 등 융 · 복합을 통한
「6차산업」 개념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
● 어촌리더의 혁신적인 육성 및 책임있는 어촌계
기능과 역량강화 필요

제2 주제발표

# 제주 어촌의 핵심, 해녀산업의 효과

– 강석규 제주대학교 교수

# 제주 마을어업의 핵심, 해녀산업의 효과

강석규

2014년 9월 30일

## 발표순서

제1장 서언
제2장 제주해녀산업의 개념과 현황
1. 개념
2. 현황
제3장 제주해녀산업의 효과: 경제적 측면
제4장 결어

## 제1장 서 언

○ 해녀는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268년에 지어진 위지왜인전에서부터 그 용어가 등장한다고 하며, 일본의 고대시집인 만연집(759)에서도 해녀를 비롯한 잠녀 등의 용어가 등장한다고 한다(송명희, 1997). 제주해녀 역시 오랜 역사적 기록과 문헌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

○ 제주해녀는 바다를 생계 터전으로 삼아 파도와 싸우며, 가계생업을 유지하는 근면하고 강인한 존재로 여성직업집단으로서 현재 제주 지역경제의 초석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음.

- 1 -

○ 그러나 해녀산업의 가치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간과하여 문화적 유산을 이어갈 20대 해녀를 거의 찾아볼 수 없어 해녀가 아주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음.

○ 이러한 시점에서 제주 어촌의 본질적 가치라 할 수 있는 오늘 제주 해녀산업의 가치와 효과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있어 다행

- 2 -

## 제2장 제주해녀산업의 개념과 현황

### 1. 개념

○ 마을어업은 면허어업의 일종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水深)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수산업법 8조 1항 6호)을 말하며,

○ 해녀어업은 법적인 용어로 신고형태의 어업이라할 수 있는 나잠어업 즉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 1항 1호)에 해당된다.

○ 제주도의 마을어업은 입어자인 해녀들이 어촌계원이나 수협조합원으로서 대부분 마을어업을 영위한다는 측면에서 마을어업을 해녀어업 또는 해녀산업이라 해도 무방.

○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녀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548호(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2009. 11. 4)에 의하면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마을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고 있거나 과거에 이와 같은 일에 종사했던 여성이라고 정의

## 제2절 현황

### (1) 해녀의 수

<표1> 제주도 인구, 어가인구수, 그리고 해녀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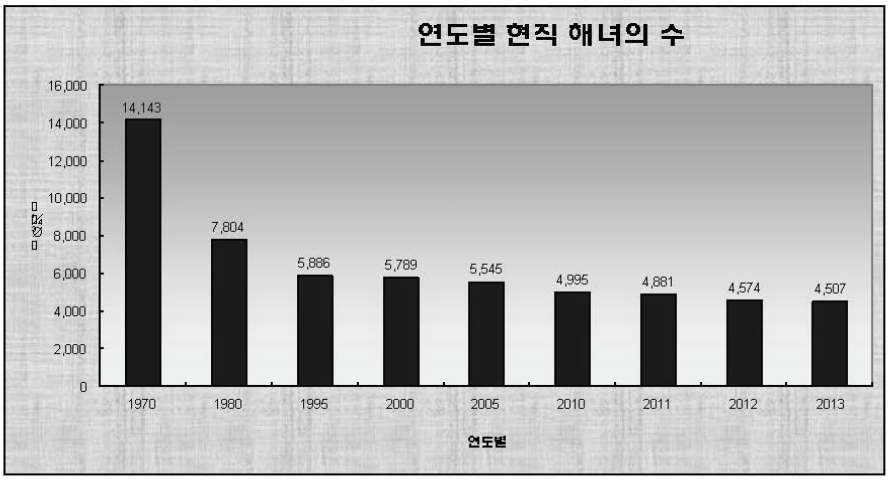
| 연도 | 제주 인구(A) | 제주 어가인구(B) | 구성비(B/A) | 해녀수(C) | 구성비(C/B) |
|---|---|---|---|---|---|
| 1972년 | 380,926 | 75,017 | 19.7% | 14,457 | 19.3% |
| 1975년 | 411,732 | 49,049 | 11.9% | 8,402 | 17.1% |
| 1980년 | 462,755 | 42,378 | 9.2% | 7,804 | 18.4% |
| 1985년 | 488,576 | 36,347 | 7.4% | 7,649 | 21.0% |
| 1990년 | 514,608 | 33,426 | 6.5% | 6,827 | 20.4% |
| 1995년 | 519,394 | 26,434 | 5.1% | 5,886 | 22.3% |
| 2000년 | 543,323 | 21,281 | 3.9% | 5,789 | 27.2% |
| 2005년 | 559,747 | 18,617 | 3.3% | 5,545 | 29.8% |
| 2006년 | 561,695 | 19,388 | 3.5% | 5,406 | 27.9% |
| 2007년 | 563,388 | 19,186 | 3.4% | 5,279 | 27.5% |
| 2008년 | 565,520 | 18,464 | 3.3% | 5,244 | 28.4% |
| 2009년 | 567,913 | 18,793 | 3.3% | 5,095 | 27.1% |
| 2010년 | 577,187 | 14,573 | 2.5% | 4,995 | 34.3% |
| 2011년 | 583,284 | 13,414 | 2.3% | 4,881 | 36.4% |
| 2012년 | 592,449 | 12,721 | 2.1% | 4,574 | 36.0% |
| 2013년 | 604,670 | 11,497 | 1.9% | 4,507 | 39.2% |

자료: 제주인구는 제주통계연보(www.jeju.go.kr), 제주어가인구는 통계청(kosis.kr), 해녀수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현황에서 참고하였으며, 어가는 지난 1년간 판매목적(2010년 120만원이상 금액)으로 1개월이상 어업을 경영한 어업자를 말함.



○ 제주 어가인구수가 '72년 75,017명으로 제주 인구수 대비 19.7% 달 할 정도로 어업에 의존도가 높았다고 볼 수 있으나 '13년 현재 제주어가인구수는 11,497명으로 84.7% 급감하여 제주 인구수 대비 1.9%에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나잠어업을 영위하는 해녀의 수도 '72년 14,457명에 달하든 것이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13년4,507명에 지나지 않음. 제주어가수의 감소폭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제주어가인구수 대비 '13년 현재 39.2% 정도 차지하고 있음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현황

<그림 1> 연도별 현직 해녀의 수



<표2> 연령별 해녀의 분포

| 구분 \ 연도별 | | 1970 | 1980 | 2000 | 2005 | 2010 | 2011 | 2012 | 2013 |
|---|---|---|---|---|---|---|---|---|---|
| 잠수수(명) | | 14,143 | 7,804 | 5,789 | 5,545 | 4,995 | 4,881 | 4,574 | 4,507 |
| 연령구성비율(%) | 30세 미만 | 31.3 | 9.8 | 0.1 (3명) | - | - | - | - | - |
| | 30 ~ 49세 | 54.9 | 60.7 | 22.1 (1,282명) | 12.9 (718명) | 2.5 (125명) | 2.7 (132명) | 1.9 (87명) | 1.5 (66명) |
| | 50 ~ 59세 | 13.8 | 29.8 | 77.8 (4,504명) | 87.1 (4,827명) | 97.5 (4,870명) | 16.9 (826명) | 16.5 (755명) | 15.4 (696명) |
| | 60 ~ 69세 | | | | | | 34.0 (1,658명) | 34.6 (1,580명) | 32.1 (1,448명) |
| | 70세이상 | | | | | | 46.4 (2,265명) | 47.0 (2,152명) | 51.0 (2,297명)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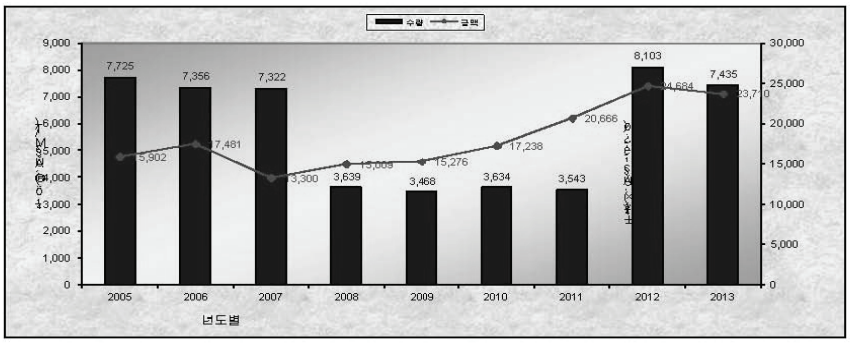
○ 현재 해녀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70세이상이 51.0%에 달하고 있어 고령화 정도가 매우 심각하며, 50세미만 해녀의 진입이 극히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 해녀산업의 생산현황

**<표 3> 마을어업의 생산실적**

(단위 : M/T, 백만원)

| 구 분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마을어업 | 수 량 | 7,725 | 7,356 | 7,322 | 3,639 | 3,468 | 3,634 | 3,543 | 8,103 | 7,435 |
| | 금 액 | 15,902 | 17,481 | 13,300 | 15,009 | 15,276 | 17,238 | 20,666 | 24,684 | 23,710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현황



**<표 3> 마을어업의 품목별 생산실적**

| 구 분 | 2008년 | | 2009년 | | 2010년 | | 2011년 | | 2012년 | | 2013년 | |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계 | 3,639 | 15,009 | 3,468 | 15,276 | 3,634 | 17,238 | 3,543 | 20,666 | 3,647 | 20,963 | 4,368 | 22,546 |
| 소 라 | 1,640 | 6,369 | 1,719 | 6,806 | 1,473 | 5,463 | 1,500 | 8,207 | 1,818 | 8,827 | 2,059 | 9,447 |
| 전 복 | 5 | 532 | 7.5 | 587 | 8.8 | 851 | 7.4 | 8,207 | 8.8 | 715 | 6.9 | 951 |
| 오분자기 | 20 | 655 | 13 | 478 | 13.9 | 592 | 7.9 | 343 | 4.9 | 258 | 5.5 | 276 |
| 성 게 | 66 | 2,165 | 93 | 3,378 | 85.3 | 3,093 | 76.3 | 3,241 | 92.5 | 3,773 | 87 | 4,537 |
| 해 삼 | 33 | 429 | 48 | 661 | 61.4 | 1,041 | 86.6 | 1,347 | 68.7 | 1,223 | 78 | 1,202 |
| 톳 [건조] | 294 | 1,020 | 388 | 1,222 | 360.6 | 1,186 | 580.3 | 1,904 | 326.9 | 966 | 358 | 559 |
| 우뭇가사리 [건조] | 514 | 1,798 | 617 | 1,640 | 636 | 2,124 | 860 | 3,502 | 709.4 | 3,488 | 921 | 2,738 |
| 감 태 | | | 251 | 262 | 373 | 478 | 165 | 254 | 396.8 | 625 | 423 | 620 |
| 기 타 | 1,067 | 2,041 | 331.5 | 242 | 622 | 2,410 | 258 | 1,225 | 221 | 1,088 | 429.6 | 2,216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현황
주: 소라 외 품목은 대부분 어촌계 비계등 판매로 이루어지고 있음

### (3) 해녀산업의 수출기여도

○ 특히 제주소라의 생산금액은 제주도의 대표적이고 향토적인 어업이라 할 수 있는 나잠어업 즉 해녀어업의 주요 소득원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표 4> 제주지역의 소라 생산량, 생산금액 및 구성비

(단위 : M/T, 억원, %)

| 연도 | 생 산 량 | | | 생 산 금 액 | | |
|---|---|---|---|---|---|---|
| | 전국 | 제주 | 구성비 | 전국 | 제주 | 기타 |
| 2010년 | 3,018 | 2,466 | (81.7) | 128 | 95 | (74.2) |
| 2011년 | 2,877 | 2,223 | (77.3) | 149 | 113 | (75.8) |
| 2012년 | 2,950 | 2,205 | (74.7) | 158 | 109 | (69.0) |
| 2013년 | 2,698 | 2,157 | (79.9) | 139 | 101 | (72.7) |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표 5> 제주소라의 수출금액과 구성비

(단위: 1,000 달러)

| 연 도 | 전국 (A) | 제주(B) | 구성비(%, B/A) |
|---|---|---|---|
| 2005년 | 8,377 | 7,134 | (85.2) |
| 2006년 | 8,482 | 5,523 | (65.1) |
| 2007년 | 5,127 | 3,466 | (67.6) |
| 2008년 | 7,476 | 4,461 | (59.7) |
| 2009년 | 7,370 | 6,139 | (83.3) |
| 2010년 | 7,543 | 6,524 | (86.5) |
| 2011년 | 9,193 | 7,251 | (78.9) |
| 2012년 | 9,892 | 8,555 | (86.5) |
| 2013년 | 8,343 | 7,862 | (94.2) |

자료 : 수출입무역통계(www.custom.go.kr)

○ 최근의 연구결과, 강석규(2014)의 "제주소라의 환율전가 효과"를 살펴보면 환율전가(pass through)는 환율변동이 수출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제주소라의 경우 1개월 전 10%의 환율상승은 1.24배에 달하는 수출가격 인하로 전가되는 반면, 1개월 전의 환율하락은 수출가격인상으로 전가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소라 생산자나 수출업자가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환율상승분을 초과하여 달러표시 수출가격을 인하하고 있으며,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환율하락분을 달러표시 수출가격 인상에 반영시키지 않으므로써 소라의 생산업자나 수출업자의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측. 특히 넙치의 분석결과와 달리, 소라의 생산업자나 수출업자에게 유리한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환율상승분을 초과하는 달러표시 수출가격 인하정책은 고민해야할 과제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아마도 소라 생산자단체의 약한 시장지배력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 제3장 제주해녀산업의 효과: 경제적 측면

○ 강석규(2013, 2014)의 연구에 기초하여 2007년 3월 처음으로 실지조사에 의한 제주 지역산업연관표(6개 권역, 2003년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77개 부문 산업에 기초하여 제주해녀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 <표 6> 제주해녀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고용 유발계수를 나타낸다. 최종수요 1단위가 발생했을 때, 각 산업부문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주지역의 산업과 타 지역의 산업에 파급시킨 직·간접의 생산, 부가가가치, 고용 창출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6> 제주해녀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고용 유발 계수

| 구분 | 제주 | 타 지역 | 국가전체 |
|---|---|---|---|
| 생산유발계수 | 1.449 | 0.464 | 1.913 |
| 부가가치유발계수 | 0.672 | 0.189 | 0.861 |
| 고용창출유발계수 | 10.001 | 2.835 | 12.836 |

○ 2013년 제주해녀산업(마을어업)의 생산금액이 수산물부문을 통해 제주지역에 32,669 백만 원의 생산금액을 유발하고, 타지역 10,461 백만 원을 포함한 국가 전체적으로 43,130 백만 원의 생산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제주지역에 15,151 백만 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포함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19,412 백만 원의 부가가치 금액을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제주 지역 내 23명의 일자리를 포함한 국가 전체적으로 29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유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7> 제주해녀산업의 경제파급효과

| 구 분 | 제주해녀산업 | | |
|---|---|---|---|
| | 제주 | 타지역 | 국가전체 |
| 생산유발 금액(백만원) | 32,669 | 10,461 | 43,130 |
| 부가가치 창출금액(백만원) | 15,151 | 4,261 | 19,412 |
| 고용유발 인원(명) | 23 | 6 | 29 |



○ 제주해녀산업의 효과는 경제적 측면 이외에도

- 제주해녀문화의 유·무형가치를 고려한 문화관광효과(ex,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등재)
- 제주해녀의 항일운동 등에서 엿볼 수 있는 역사교육효과
- 제주해녀의 춤, 노랫말 등 문학적 가치와 효과

## 제4장 결어

○ 제주해녀산업에 의해 생산되는 제주소라는 넙치 다음으로 800만불에 달할 정도로 제주의 대표적인 수출기여 품목이며,

○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제주해녀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수산물부문을 통해 제주지역에 32,669 백만 원의 생산금액을 유발하고, 타지역 10,461 백만 원을 포함한 국가 전체적으로 43,130 백만 원의 생산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제주지역에 15,151 백만 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포함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19,412 백만 원의 부가가치 금액을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제주 지역내 23명의 일자리를 포함한 국가 전체적으로 29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유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이와 같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제주해녀산업은 경제적 측면인 생산유발, 부가가치창출, 고용창출 측면에서 볼 때 제주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이며, 국가 경제적으로도 크게 기여하는 산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정부차원 또는 제주도정 차원에서 해녀산업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해녀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주해녀의 관광자원가치, 문화적 가치, 산업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 참고문헌

강석규(2014), "제주도 주요 농수산품시장의 수급구조 분석과 시사점," 한국은행 제주본부, woking paper.
강석규(2014), "제주 시범바다목장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 working paper.
강석규(2013), "제주 해양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해양정책연구, 제29권 제1호, 51-72.
김영돈 · 김범국 · 서경림(1986), "해녀조사연구," 탐라문화, 5, 145-268.
송명희(1997), 해녀의 체험공간으로서의 바다-김정한 · 오영수 · 이태준 · 강인수의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8, 425-447.

안미정(1998),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와 사회적 정체성," 제주도연구, 15, 153-193.
정상철(1989), "제주해녀의 어획노력량 분석," 한국수산과학지, 22(4), 196-200.
좌혜경 · 권미선(2009),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 제주도연구, 32, 229-259.
현홍준 · 서용건 · 고계성(2011), "문화유산으로서 제주해녀의 관광자원 선택속성, 영향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관광객과 지역주민 간 비교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37, 481-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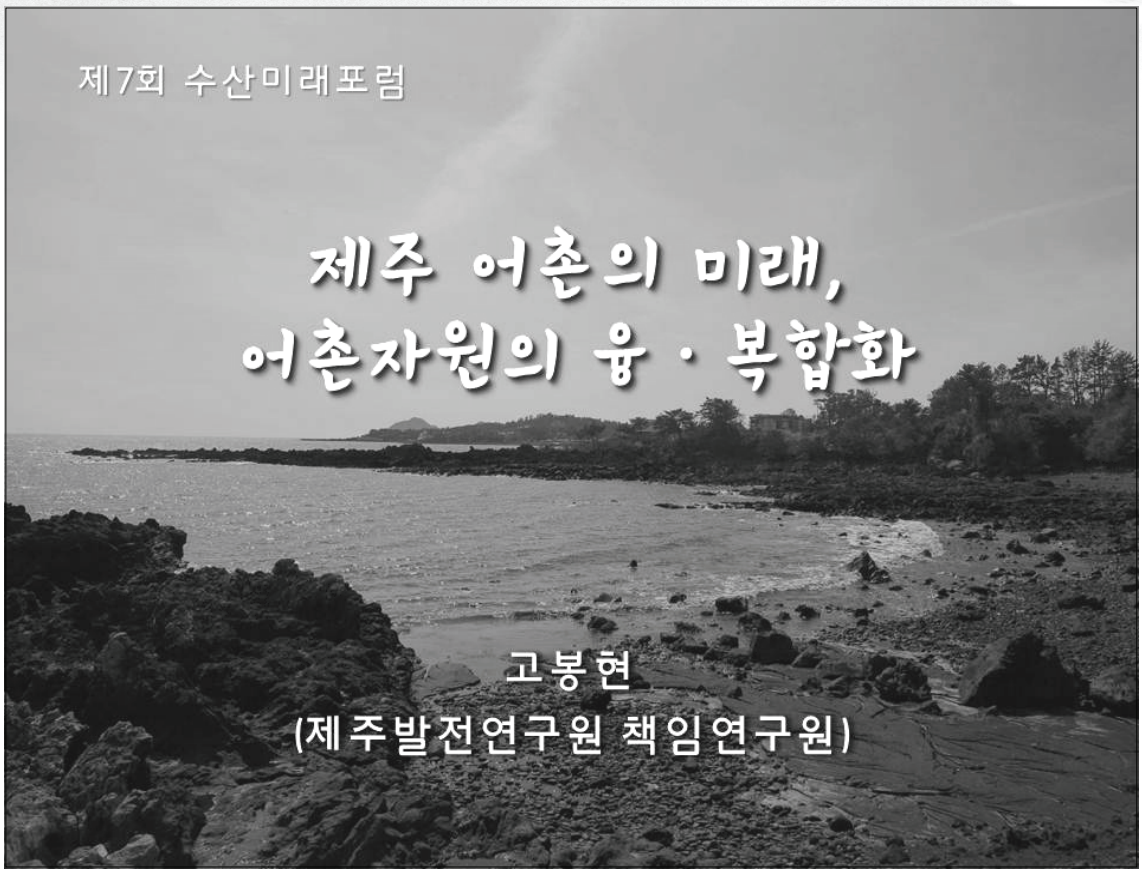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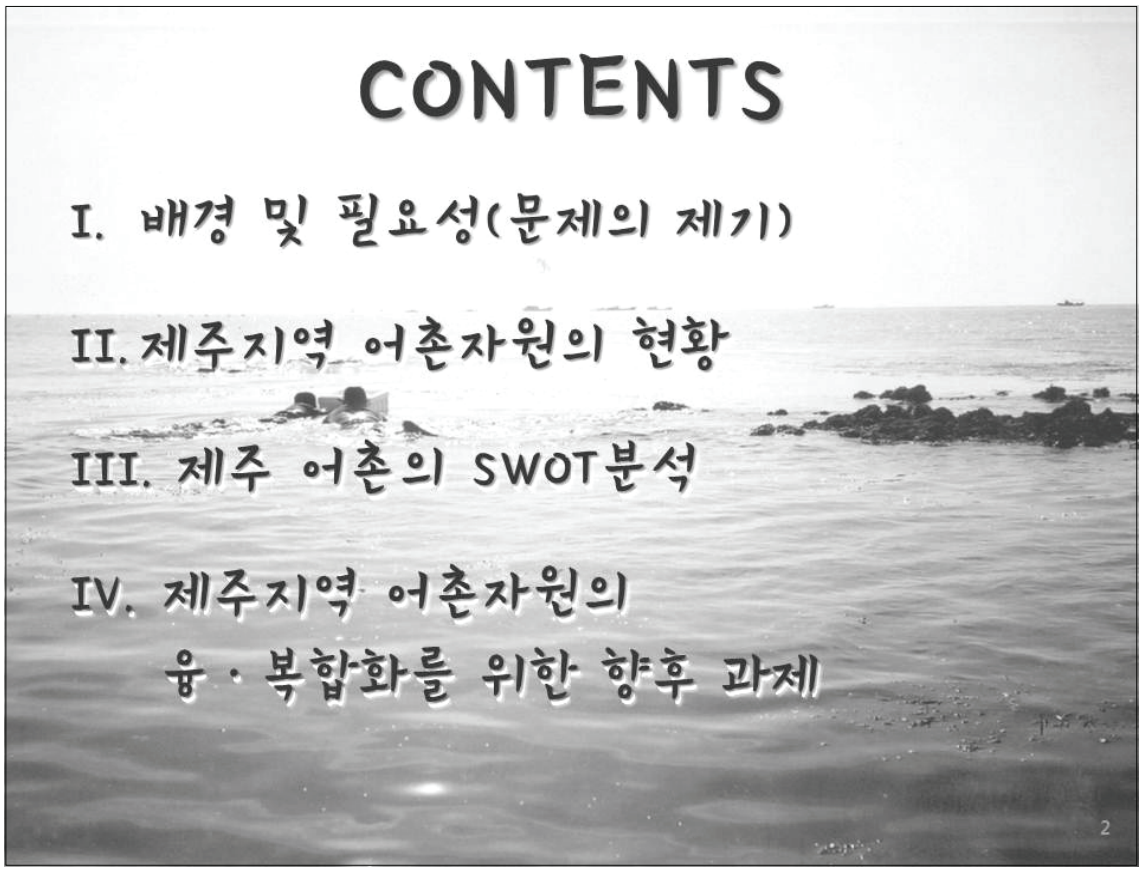
#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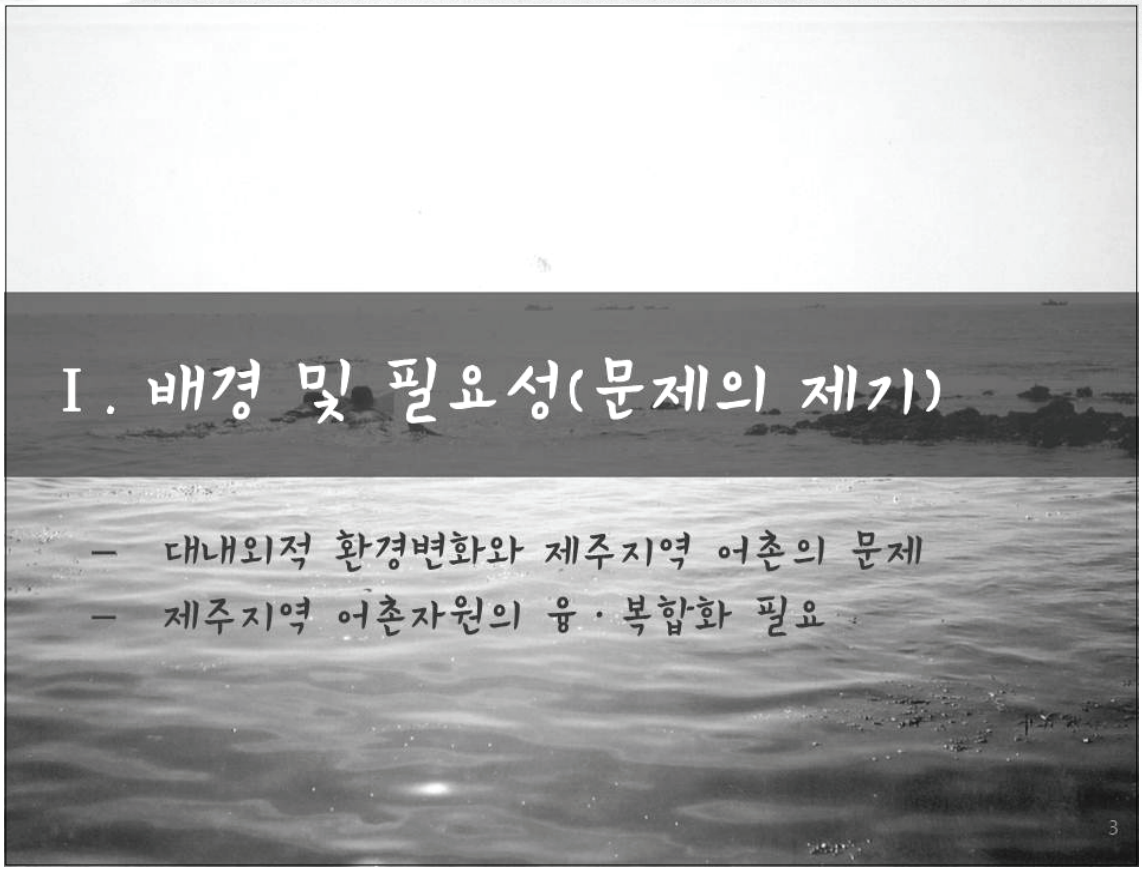
제3 주제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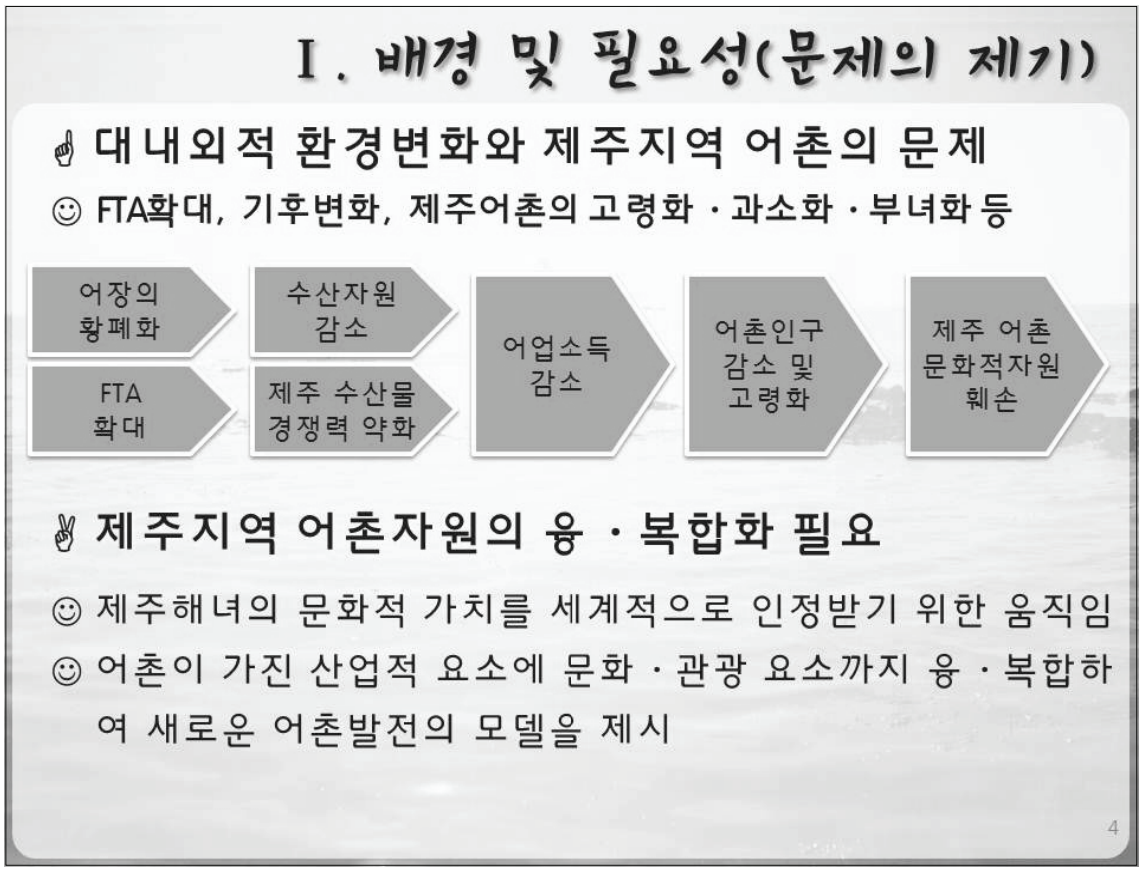
# 제주 어촌의 미래, 어촌자원의 융·복합화

– 고봉현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제7회 수산미래포럼
제주 어촌의 미래,
어촌자원의 융 · 복합화
고봉현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CONTENTS
I. 배경 및 필요성(문제의 제기)
II. 제주지역 어촌자원의 현황
III. 제주 어촌의 SWOT분석
IV. 제주지역 어촌자원의
융 · 복합화를 위한 향후 과제
2


Ⅰ. 배경 및 필요성(문제의 제기)
–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제주지역 어촌의 문제
– 제주지역 어촌자원의 융·복합화 필요
3


Ⅰ. 배경 및 필요성(문제의 제기)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제주지역 어촌의 문제
FTA확대, 기후변화, 제주어촌의 고령화·과소화·부녀화 등
어장의 황폐화
FTA 확대
수산자원 감소
제주 수산물 경쟁력 약화
어업소득 감소
어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제주 어촌 문화적자원 훼손
제주지역 어촌자원의 융·복합화 필요
제주해녀의 문화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움직임
어촌이 가진 산업적 요소에 문화·관광 요소까지 융·복합하여 새로운 어촌발전의 모델을 제시
4

## Ⅱ. 제주지역 어촌자원의 현황

- 사회·경제적 현황
- 인문학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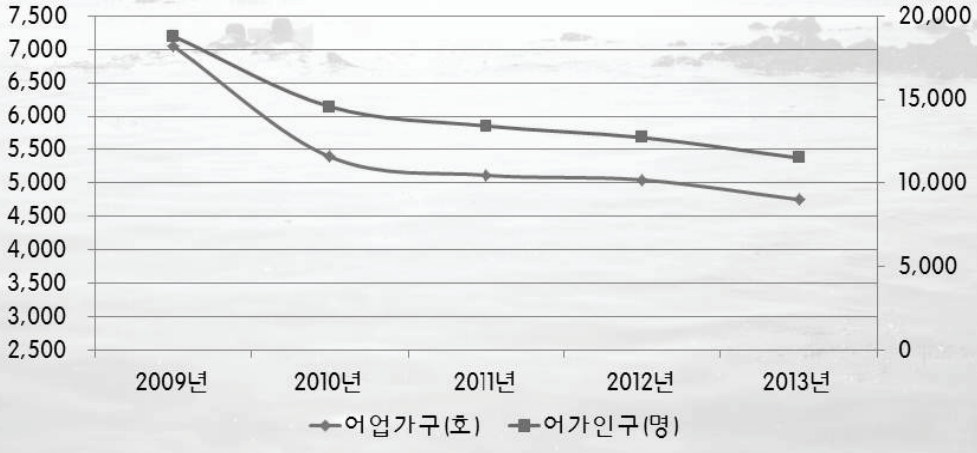
5

## Ⅱ. 제주지역 어촌자원의 현황

### 사회·경제적 현황

☺ 어업가구 및 인구, 전남·충남·경남에 이은 네 번째 규모

- 2013년 기준 어업가구 4,752호, 어가인구 11,497명
- 2009년 이후 어업가구와 어가인구 감소추세




6

## Ⅱ. 제주지역 어촌자원의 현황

### ☝ 사회 · 경제적 현황

☺ 잠수 어업인(해녀), 지속적인 감소 추세

- 2013년 기준 4,507명, 이 중 50세 이상이 4,441명으로 98.5%

| 구분 | 1970년 | 1980년 | 2000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계 | 14,143 | 7,804 | 5,789 | 4,995 | 4,881 | 4,574 | 4,507 |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30세 미만 | 4,427 | 765 | 3 | - | - | - | - |
| | (31.3) | (9.8) | (0.1) | (0.0) | (0.0) | (0.0) | (0.0) |
| 30~49세 | 7,764 | 4,737 | 1,282 | 125 | 132 | 87 | 66 |
| | (54.9) | (60.7) | (22.1) | (2.5) | (2.7) | (1.9) | (1.5) |
| 50세 이상 | 1,952 | 2,302 | 4,504 | 4,870 | 4,749 | 4,487 | 4,441 |
| | (13.8) | (29.5) | (77.8) | (97.5) | (97.3) | (98.1) | (98.5) |

7

## Ⅱ. 제주지역 어촌자원의 현황

### ☝ 사회 · 경제적 현황

☺ 어촌계 및 마을어업 현황(2013년 기준)

- 어촌계 100개소, 면적 14,431ha, 생산량 4,368톤, 금액 225억원
- 주요 생산물 : 소라, 전복, 성게, 톳, 천초, 갈래곰보 등
- 마을어업의 조수입 : 생산량 감소와 물가상승에 따른 상대적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에 있음
- 마을어업 생산량 및 생산금액 증가추세 : 연평균 3.1%(생산량), 7.0%(생산금액) 증가

| 구분 | 개소 | 면적(ha) | 생산량(톤) | 금액(백만원) |
|---|---|---|---|---|
| 계 | 100 | 14,431 | 4,368 | 22,546 |
| 제주시 | 56 | 7,738 | 2,736 | 13,083 |
| 서귀포시 | 44 | 6,693 | 1,632 | 9,463 |

8

## Ⅱ. 제주지역 어촌자원의 현황

### ✌ 인문학적 현황

☺ **포구 : 자연생태적 여건을 잘 반영하고 있음**

- 남쪽 : 대부분 칸살을 만들지 않고 큰 암반을 이용
- 북쪽 : 조간대가 길기 때문에 안 · 중 · 밖의 삼칸을 구성
  → 북서풍에 대비하는 지혜를 보임

〈한림읍 수원리 조물개(평수포구)〉

〈대정읍 동일리 홍물포구〉

- **조사된 지역별 총 유적수** : 제주시 70곳, 서귀포시 50곳 총 120곳

**자료 : 좌혜경 · 정광중(2013), 『제주해양유적과 문화보전 · 활용 방안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9

## Ⅱ. 제주지역 어촌자원의 현황

### ✌ 인문학적 현황

☺ **원담**

- 밀물 때 조류를 따라 들어온 물고기들이 썰물이 되면 원담 안에 갇히게 됨
  → 족바지나 삼태기 등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음
- **개인이 쌓아올리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작업**

〈한림읍 금능리 모른원〉

〈한림읍 금능리 담축제〉

- 원담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다른 관광자원과 연계 가능성의 높은 정도를 기준으로 삼음

10

## Ⅱ. 제주지역 어촌자원의 현황

### ✌ 인문학적 현황

☺ **소금밭** : 열약한 조건에서 생산

- 195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현시점까지 거의 쓸모없는 장소로 인식 → 다른 용도로 전환되거나 또는 계속 방치됨

〈한경면 금등리 너븐모살 소금밭〉

〈애월읍 애월리 배무숭이 소금밭용 돌솥〉

〈구엄소금빌레〉

- 1990년대 말부터 몇 차례나 복원을 시도하여 관광객들의 체험장소로 활용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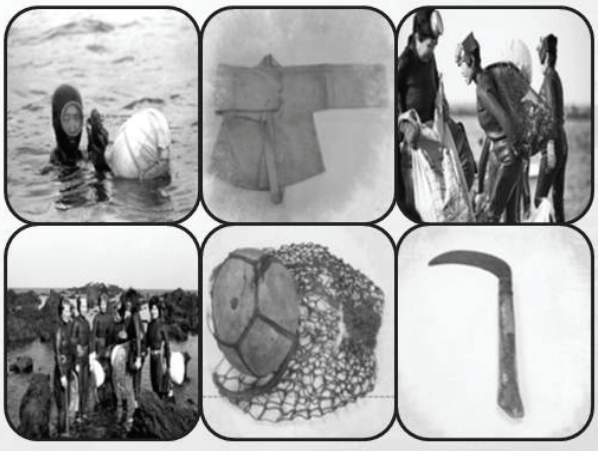
## Ⅱ. 제주지역 어촌자원의 현황

### ✌ 인문학적 현황

☺ **해녀**

- 해녀문화 : 제주해녀들이 물질 작업과 함께 생활에서 생겨난 유·무형의 살아있는 문화유산

- 긴 역사 속에 각인된 제주의 무형문화유산
- 그간의 찬란한 기억을 대상으로 한 현지보존
- 미래지향의 존재 구현으로 가치추구
-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과 공존을 위한 노력 필요



12

## Ⅱ. 제주지역 어촌자원의 현황

### ✌ 인문학적 현황

☺ 불턱

〈하도리 서동 불턱〉

〈성산 신양리 '오등애' 불턱〉

- 몸을 데우고 옷을 갈아 입는 공간 ( 해녀공동체의 상징 )
  → 정보전달, 의사소통, 인간적인 질서와 상호간의 배려
  → 인간적인 삶의 미덕
- 상 · 중 · 하 군의 계급에서 상 · 하의 배려

13

## Ⅱ. 제주지역 어촌자원의 현황

### ✌ 인문학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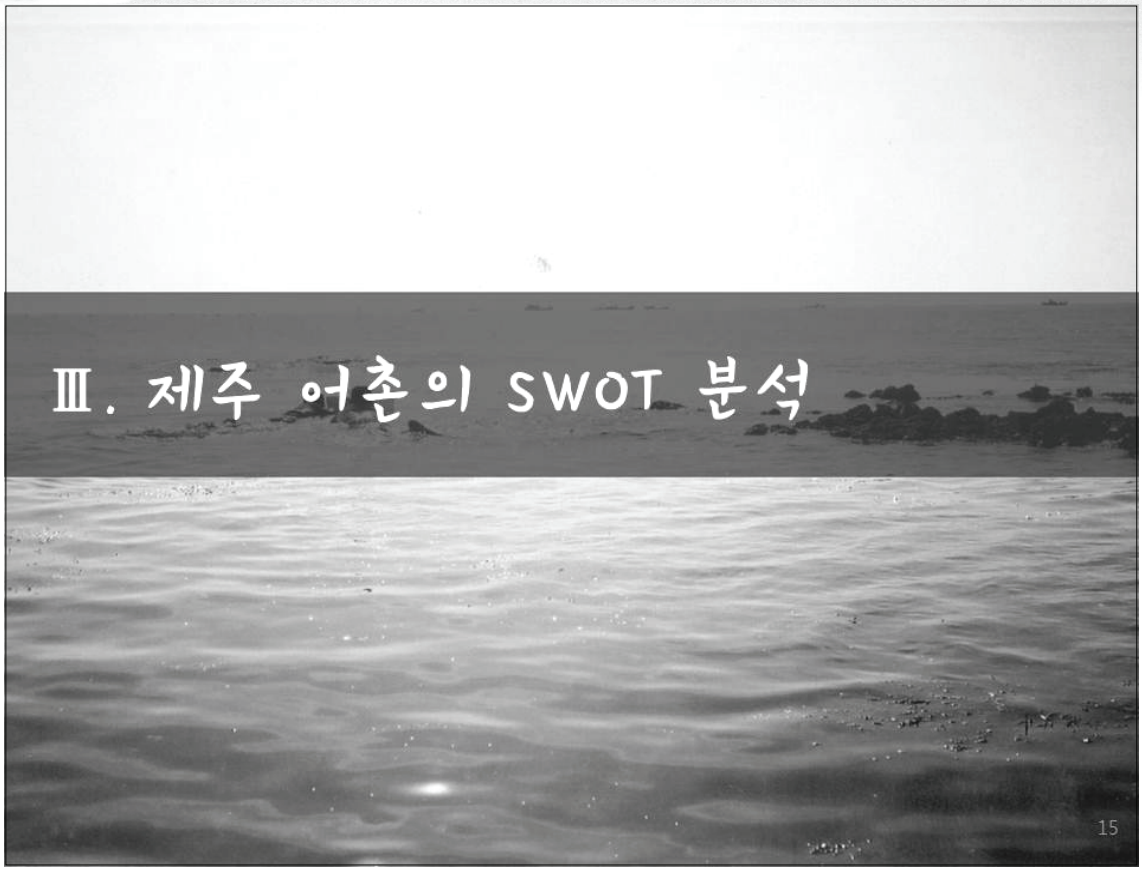
☺ 해신당등의 무속의례 (잠수굿,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 해녀공동체를 확인시켜주는 대표적인 의례이며 축제
- 해녀들이 물질작업의 안전과 풍요를 기원 (무사안녕과 풍요)
- 해녀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제물을 준비
- 해신당
- 요왕맞이 : 바다를 관장하는 용왕(龍王)을 맞아들여 풍어와 무사고를 기원
- 씨드림 : 해녀들의 채취물의 풍어기원 하며 씨를 바닷가에 뿌리는 의례

〈종달리 – 생개남돈짓당〉

〈김녕리 잠수굿〉

14




## Ⅲ. 제주 어촌의 SWOT 분석

### SWO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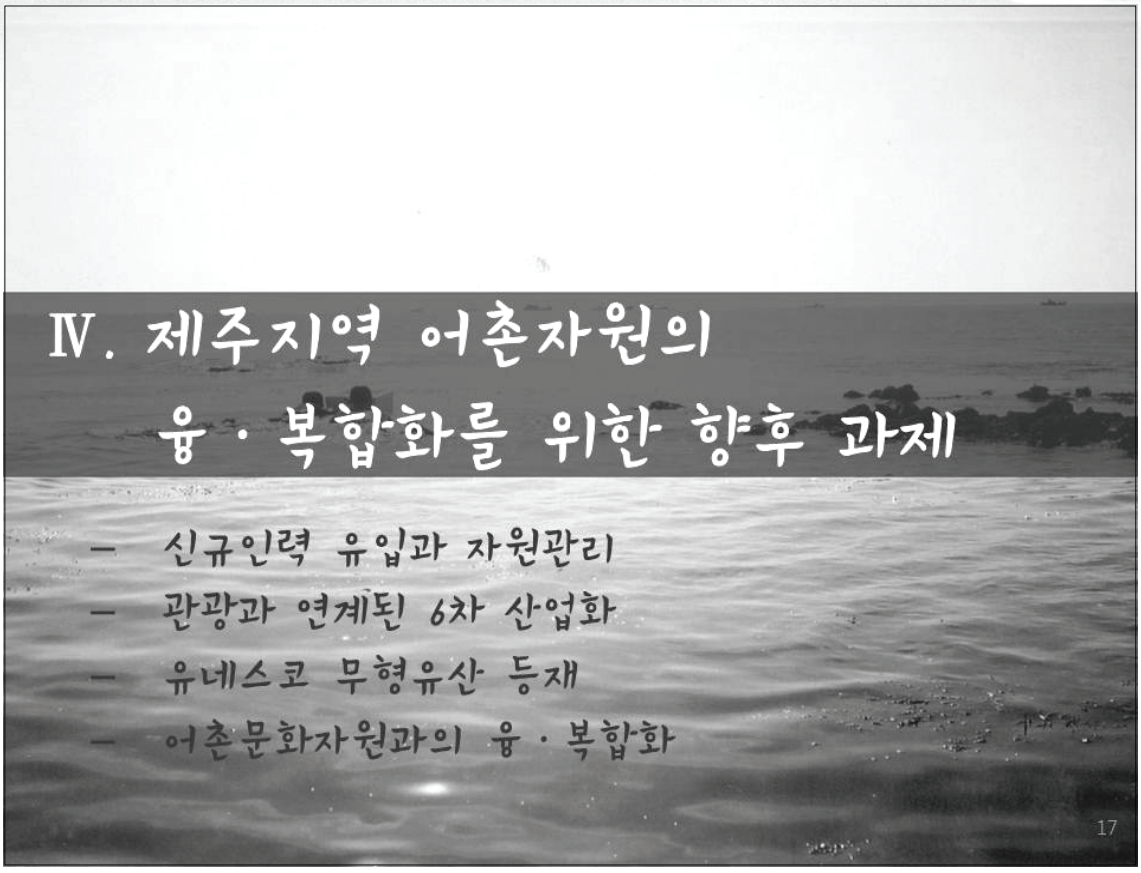
**Strength (강점)**
- ✓ 어촌계원, 해녀 많음
- ✓ 어장형성이 잘되어 있음
- ✓ 양식 및 가공 기반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음
- ✓ 생산자단체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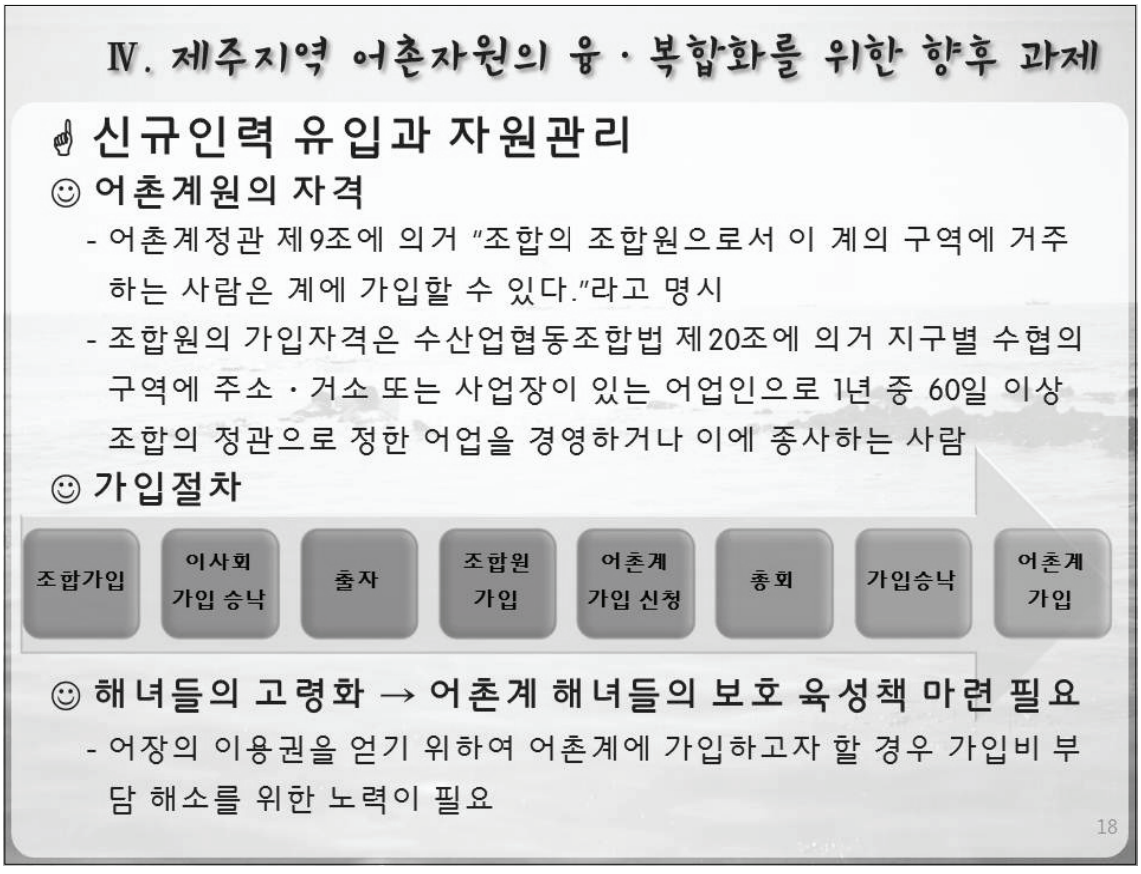
**Weakness (약점)**
- ✓ 어업규모화가 상대적으로 되어 있지 못함
- ✓ 어촌 노령화, 신규인력 참입 제한적
- ✓ 마을어업의 경우 생산어종 단순
- ✓ 자원관리의 어려움

**Opportunity (기회)**
- ✓ 관광과 연계가 용이
- ✓ 중국관광객 증가
- ✓ 청정수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
- ✓ 수산 고유 문화 발달
- ✓ 중국에서의 제주 수산물의 좋은 이미지
- ✓ 제주 고유의 식문화

**Threat (위협)**
- ✓ FTA등 시장 개방화
- ✓ 기후변화・자원감소
- ✓ 항만개발 ・어장환경 훼손
- ✓ 중국 불법어업

16


Ⅳ. 제주지역 어촌자원의
융·복합화를 위한 향후 과제
– 신규인력 유입과 자원관리
– 관광과 연계된 6차 산업화
–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 어촌문화자원과의 융·복합화
17


Ⅳ. 제주지역 어촌자원의 융·복합화를 위한 향후 과제
☝ 신규인력 유입과 자원관리
☺ 어촌계원의 자격
- 어촌계정관 제9조에 의거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계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명시
- 조합원의 가입자격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에 의거 지구별 수협의 구역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
☺ 가입절차
조합가입
이사회 가입 승낙
출자
조합원 가입
어촌계 가입 신청
총회
가입승낙
어촌계 가입
☺ 해녀들의 고령화 → 어촌계 해녀들의 보호 육성책 마련 필요
- 어장의 이용권을 얻기 위하여 어촌계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가입비 부담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
18

## Ⅳ. 제주지역 어촌자원의 융·복합화를 위한 향후 과제

### ☝ 신규인력 유입과 자원관리

### ☺ 우리나라 어업자원관리 수단 및 주요 시책

| 구분 | 관리수단 | | 주요정책 |
|---|---|---|---|
| 수산자원이용제한 | 어획량 관리 |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 TAC제도 시행 및 모니터링 |
| | 어획노력량 관리 | 면허 및 허가정수 관리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및 소형 기선저인망 감척 |
| | | 어선톤수·마력수 규제 | |
| | | 선복량 및 어구사용량 제한 | |
| | 기술적 관리 | 어선·어구제한 | 어구실명제실시,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휴어제 및 어장휴식년제 진원 등 |
| | | 어구사용 금지구역·기간제한 | |
| | | 포획금지체장 | |
| | | 특정어업 금지구역 | |
| | | 수산자원보호구역 | |
| 수산자원조성 | 환경생태 관리 | 어장정화 | 양식어장정화사업, 인공어초시설사업, 어초어장관리사업, 해중림조성사업, 수산종묘방류사업, 바다목장화사업 등 |
| | | 배출수 규제 | |
| | 어장조성 | 인공어초, 해조장, 투석, 갯닦기 등 | |
| | 자원첨가 | 종묘방류 | |

자료 : 김대영외(2008),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평가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개발원, p.17 재인용

19

## Ⅳ. 제주지역 어촌자원의 융·복합화를 위한 향후 과제

### ☝ 신규인력 유입과 자원관리

### ☺ 마을어장 휴식년제 도입 필요성

- **제주지역 수산부문의 녹색성장을 위한 초석 마련**
  - 수산부문의 다원적 기능 제고, 공익형 직불제 일환, 휴식년제 필요
- **시장개방화 시대에 어업인 소득 안전망 장치**
  - WTO/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피해보전 직불제로는 부족
- **수산자원조성사업 효과의 극대화**
  -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휴식년제 필요
- **제주지역 어촌경제의 특수성 강화**
  - 마을단위로 조직된 어촌계의 지속적 유지, 공동체 중심의 마을어장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 강화를 위해 필요

20

## Ⅳ. 제주지역 어촌자원의 융·복합화를 위한 향후 과제

### ☝ 신규인력 유입과 자원관리

☺ **마을어장 휴식년제 : 지금까지 시행된 적 없는 새로운 제도**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자체규약에 따라 어촌계별 자율적인 실시는 있었으나 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직접지불제 개념 도입을 위한 시도는 한 차례도 없었음

☺ **휴식년제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 해야함**

☺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어촌계원이 소규모인 지역의 마을어장을 우선적으로 선정**

→ **사업실시 용이, 사업의 효과가 증대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1

## Ⅳ. 제주지역 어촌자원의 융·복합화를 위한 향후 과제

### ☝ 신규인력 유입과 자원관리

☺ **단계별 휴식년제 시행 절차**

**1단계 휴식년제 시범사업**

◆ **대상어장 선정 우선순위**
- 어촌계원이 소규모 마을어장
- 복수의 어장일 경우, 특정 지역에 집중
-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 우선 고려

**2단계 휴식년제 효과검증**

◆ **대상어장의 자원량 조사실시**
- 휴식년제 시행 전·후 자원량 조사 실시

◆ **휴식년제 효과분석**
- 휴식년제 시행 전·후 품종별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 분석 실시

◆ **수산자원조성사업과의 연계성(종합평가) 검토**
- 휴식년제 시행에 따른 투자비용 절감효과 분석

**3단계 휴식년제 확대실시**

◆ **시범사업을 통해 휴식년제 효과 검증**
- 대상어장 확대를 통한 사업 실시

22

## Ⅳ. 제주지역 어촌자원의 융·복합화를 위한 향후 과제

### ✌ 관광과 연계된 6차산업화

☺ 어촌의 유·무형의 자원을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
→ 일자리 창출 및 소득원 개발로 연계할 필요

- 어촌자원의 관광화, 수산물 가공화, 직거래 및 판매 촉진 등
- 지역특화품목사업, 신활력사업, 향토산업지원사업, 클러스터사업 등 활용

23

## Ⅳ. 제주지역 어촌자원의 융·복합화를 위한 향후 과제

### 👌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 해녀문화 세계적 가치 인정

☺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표목록 또는 긴급목록에 각국의 무형문화유산을 등재하는 제도.

☺ 등재 목적

- 지역의 전통문화와 역사성 보전
- 문화의 다양성을 지킴
- 제주도 문화자원으로 활용

24

## Ⅳ. 제주지역 어촌자원의 융 · 복합화를 위한 향후 과제

###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 해녀문화 세계적 가치 인정

☺ 2005년까지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프로그램 사업이었으나 지금은 세계유산과 마찬가지로 정부 간 협약으로 발전

→ '제주해녀' 유네스코 대표목록 등재대상 선정, 국가목록 확보 (2013. 12.19)

→ 제주해녀들의 생활사 조사로 공동체 문화 보존.전승기반 마련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는 해녀문화 보존의 가장 최선의 정책.

→ '제주해녀'는 대표목록 '국가목록'에 선정(2014.3) → 2016년 등재계획.

25

## Ⅳ. 제주지역 어촌자원의 융 · 복합화를 위한 향후 과제

### ☞ 어촌문화자원과의 융 · 복합화

☺ 블루투어리즘 : 해양문화의 관광 자원화

여가 활동 공간과 더불어 어촌계에 체재 → 지역민들과 교류 → 생산의 장에서 어업을 체험 → 지역 생활공간과의 관계 심화

〈스킨스쿠버 체험〉

〈해녀 체험〉

〈바릇잡이 체험〉

☺ 올레코스와 연계한 도로표지나 지역 안내판 등 정보 제공

☺ 어촌 마을환경 창출 및 어촌의 독특한 분위기를 살린 어촌공간이 가진 민속적 의미 확인과 취락 환경의 정비

26

## Ⅳ. 제주지역 어촌자원의 융·복합화를 위한 향후 과제

☞ 어촌문화자원과의 융·복합화

☺ 에코뮤지엄 = 해녀생태박물관(해녀의 역사·기억·가치 보존)

- 환경과 조화되고 '확장된 의미의 박물관'으로 고유의 역사적 전통을 바탕으로한 사람, 환경, 문화가 만나는 장소

27

## Ⅳ. 제주지역 어촌자원의 융·복합화를 위한 향후 과제

☞ 어촌문화자원과의 융·복합화

☺ 조성기반

→ 대상지는 '해녀항일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

→ 해녀문화가 잘 보존된 구좌읍 하도리가 적당

☺ 구좌읍 하도리 해안 인근 접근성과 인지성 확보

→ 어촌계 관광센터의 전문화 (인터넷 홍보, 민박안내, 지도 및 관광기념품 판매)와 안내요원 배치

→ 올레꾼들로 하여금 자원이 있는 곳을 쉽게 접근, 관람이 가능하도록 함

→ 자연친화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조경과 자연에너지를 활용하면서 주변 경관을 관리함.

〈해녀 항일운동 기념탑〉

28

감사합니다.
Thank You.
29

토 론

# 종합토론 및 질의 응답

○ **좌 장** : **김정봉** 수산경제연구원장

○ **토론자**

- **서장우**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 **박태희**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 **좌혜경** 제주발전연구원 박사
- **김시준** 한림수협 조합장
- **이선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포럼 대표
- **김호연** 경기남부수협 백미리어촌계장
- **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 M • E • M • O

# M • E • M • O

# M • E • M • O

# M • E • M • O